

산업역군·민주투사... 그들은 항상 변혁의 기수였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내달 29일까지 '광주청년 K씨의 삶' 기획전

구한말서 근현대까지

3부 나뉜 청년들의 삶 조명

유물 200여점과 함께

DJ박스·자취방 등 재현

선배 청년들의 위로 영상도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아파도 너무 아픈 시대’다. 꿈은 뒷전이고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게 최우선이 됐지만 갈수록 좁아지는 바늘구멍 취업문에 막막하기만 하다. 예전 청년들도 이처럼 힘든 시기를 살았을까.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주인택)이 역사 속 광주 청년들을 불러내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립민속박물관이 5월29일까지 기획전 ‘광주청년, K씨의 삶’을 개최한다. ‘K씨’는 광주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대명사다.

28일 오전 방문한 민속박물관에서는 전시 개막을 앞두고 마무리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다. 주인택 관장을 비롯해 학예사들은 유물 전시 위치, 안내 표지, 관람 동선 확인 등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종년 직원들은 작업 중간중간 옛 물건을 가리키며 후배들에게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등 추억에 젖는 모습이었다.

이런 전시는 크게 3부로 나눠 전통사회부터 근현대까지 청년들의 삶을 조명한다. 전시물 200여점과 함께 DJ박스·뽕뽕다리·자취방 등을 현장에서 재현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처음 만나는 제1부 ‘전통 사회의 청년’은 소년으로 불린 전통사회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은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었다. 30대까지 ‘소년(少年)’으로 불렸다.

당시 청년들은 과거금제를 위해 학문에 정진하고 진중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통과의례를 치렀다.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성년의례(관례·계례·진세례) 유물로 미뤄 10대 후반에도 어엿한 성인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례·계례는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찌는 의식이다. 특이한 건 진세례다. ‘들돌’로 불리는 무게 약 80kg 돌덩이를 들어야 농군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다. 전시장 한편에는 관람객들도 도전해볼 수 있도록 43·62·80kg 돌들이 놓여 있다.

약 2m 길이 검은색 터널을 지나면 20세기 초반으로 시간여행한다. 제2부 ‘근대, 청년의 등장’에서는 ‘청년’ 용어가 본격 등장하는 1910년대 이후를 조망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각성과 항일운동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실업가로 등장한 이들의 삶도 더불어 살핀다.

광주극장 영상기 필름과 함께 소개되는 최선진씨는 10대 후반 장터를 돌며 쌀·목화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으로 20대에 부호로 들어섰다. 1930년대 광주극장을 설립하고 해방 이후 동성고등학교(옛 광주상고)를 만드는데 앞장선 대표적 청년활동가다.

심덕선은 10대 후반 포목장사에 뛰어들고 1920년대 현 충장로47에 ‘남창상회’ 포목점을 열어 충장로 변영에 이바지했다. 당시 충장로 삼점 광고지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한편에 전시된 ‘왕재일 서간문’은 광주학생운동 중심점이었던 ‘성진회’ 총무를 맡았던 왕재일 선생이

집으로 보낸 편지다. 역사적 사명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전해진다.

또 한번 터널을 지나면 제3부 ‘청년의 시대와 광주’로 이어진다.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우리지역 청년 활동상을 살펴본다.

특히 이곳에서는 뽕뽕다리, 학생자취방, DJ박스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중앙에는 뽕뽕다리를 건너 일신방직으로 향하는 여공들을 찍은 대형 사진과 함께 모형 뽕뽕다리가 설치됐다. 군데군데 지름 약 5cm 동구관 구멍이 뚫린 다리(길이 6m·너비 1.5m)를 건너며 노동자 삶을 살았던 청년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 재현된 자취방은 진짜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실적 묘사가 돋보인다. 주 관장이 직접 방을 꾸미는데 참여했다. 마시다 남긴 콜라, ‘양은냄비’가 놓여있는 주방 입구에 걸려있는 파란비닐 우산이 눈길을 끈다. 쪽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취방에는 1970년대 라디오, 옷장, 꽃무늬 밥통, 양은냄비 책상이 놓여있다. 책상 앞에는 ‘기필코 이겨내리라’ 문구가 붙여져 있고 벽에는 얼룩말무늬 교련복이 걸려있다. 책상에 놓인 ‘선데이서울’ 잡지는 여전히 남성(男心)을 자극했다.

DJ박스는 마이크, 조용필·유재하·비틀즈 등 LP 판 50여장, 스피커·텐테이블 등을 갖추고 있다. 옛 다방에서 흔히 보았던 휘낭이는 추억을 소환한다. 금방이라도 김머리를 휘날리는 DJ가 이름을 불러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선배청년들이 후배들에게 보내는 위로·희망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있다. 문순태 소설가, 산악인 김홍빈 대장,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이 참여했다. 또 관람객들이 다짐과 응원 메시지를 손편지에 담아 붙여놓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청년 시절 1970~80년대 격동기를 거친 주 관장은 “우리 선배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뤄낸 저력이 있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금 청년들이 더 많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536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920년대 광주청년운동 산실 ‘흥학관’ 학생들.



1978년 들돌아학이 발행한 잡지 ‘들돌’



1970년대 청년 자취방을 재현한 공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광주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전 ‘광주청년, K씨의 삶’을 5월29일까지 연다. 뽕뽕다리(오른쪽)를 비롯해 자취방, DJ박스를 재현했다.

무등미술대전 강수현씨 ‘열꽃’·전해주씨 ‘공존’ 대상

<한국화 부문>

<서양화 부문>

전국서 9개 부문 1297점 응모...879점 입상

제32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강수현(23·대전)씨가 작품 ‘열꽃’으로 한국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전해주(58·서울)씨가 작품 ‘공존’이 대상에 올랐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28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32회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7개 부문 7개 작품을 대상으로, 9개 부문 26점을 우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판화와 조각 부문 대상작은 없다.

이번 무등미술대전에는 전국에서 모두 9개 부문 1297점이 응모했으며 특선 228점, 입선 614점 등을 포함해 총 876점이 입상했다. 심사위원장은 김수자 원광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문인화 서정주(61·경남 진주) ‘묵죽’, ▲수채화 이영희(60·대전) ‘자연의 소리’, ▲공예 김진영(32·여수) ‘휴식’, ▲사에 채종욱(49·광주) ‘박상선생시’, ▲사진 김용욱(51·광주) ‘무한의 감상자’ 등이다.



‘열꽃’



‘공존’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입상작품들은 오는 5월13~17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문의 062-233-19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권춘식 “미인도 내가 그려...화랑협회 압박에 번복”

한달만에 또 말 바꿔...‘위작 폐기 변호인단’ 새 진술서 제출

진위 논란이 인 천경자의 ‘미인도’를 그렸다고 주장하다 지난 3월 입장을 번복한 권춘식 씨가 또다시 말을 바꿨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를 대리하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면서 권씨의 새로운 진술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권씨가 (지난 3월) 진술 번복은 화랑협회 관계자의 강권 때문에 압박을 느껴 이뤄진 것이며,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는 자신이 그린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인증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배급자 변호사는 28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권씨가 지난 2월 방송 프로그램의 취재에 응할 때 화랑협회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면서 “권씨와 화랑협회 관계자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씨가 지난달에 그림을 그리

지 않았다고 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그림을 그렸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미인도 문제의 진실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초 “1978년 위작의뢰자에게 세 점 그려줬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 스스로 미인도와 착각해서 말한 것 같다”며 그림을 그린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 판매도 가능

바람도 시간도 쉬어가는 **신안군의향! 신안**으로 오세요

대표이사	보경전	다해상	해상국립공원	신안군산업진흥원	신안군수산업진흥원	목포·신안군지부	농협중앙회	신안교육지원청	의원	의원	부원장	부원장	부원장	부원장	신안군	신안군	
이장선	이준	임익원	사무소	진흥원	진흥원	지부	중앙회	지원청	최승환	정광호	주원덕	이원용	정미용	권종주	신인배	최영모	외인수

청정지역 신안의 특산물

신안 천일염

신안 성초

신안 명공

신안 김

신안 꿀갈